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년 6월 29일(수) 9:30 이후

담 당 :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전종윤 과장대리(990-7045)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지역기업 영향 긴급 모니터링 결과

지역 수입업체, 원자재가격과 환율 고공행진에도 뾰족한 대책 없어..

- ▶ 가격결정권 없는데 환율인상으로 수입단가 상승하여 환차손 누적
- ▶ 달러선물 활용한 환헤지에도 불구하고 달러선물 모두 소진, 환헤지상품 실효성 의문
- ▶ 전년대비 원자재가격 40% 상승, 가격올리고 싶지만 판매경쟁력 낮아질까 걱정

지역 수입업체들은 원·달러 환율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비용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제품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9일(수), 수입비중이 높은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환율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영향 및 피해상황을 긴급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높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 확대로 원·달러 환율마저 급등세를 보이자 지역 수입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 철강, 화학, 섬유 등 원부자재 수입 기업들은 이미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직면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이란 변수까지 원가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가격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료품 유통업체 A사는 "환율인상으로 제품 수입단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는 정해져 있는데 원가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 환차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면서, "환 헤지 상품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상품의 특성상 리스크가 크고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조가 복잡한 환율 관련 상품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철강 제조업체 B사도 “거래대금 결제 시 달러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상승을 예상하고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달러선물을 활용해 환헤지를 했으나, 보유한 달러선물조차 모두 소진함에 따라 높아지는 원가부담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하였다.

앞선 사례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대해 지역기업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물리적, 재정적 한계로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여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인상된 원가를 납품가격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일시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협력업체 입장에서 거래 관행상 납품단가 인상 요청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판매량 감소 우려로 제품 가격 인상 역시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식료품 제조업체 C사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대기업에서 아직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 않아서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제품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판매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민감한 부분” 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한편 일부 화학 업체와 수입규모가 큰 철강업체는 현재의 공급망 리스크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인상 및 환율문제는 연초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정 부문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나, 에너지가격 추가 인상 및 물류비 상승 등 복합적인 수익악화 요인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산상의 경제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상승 리스크에 대한 개별기업 차원의 대책 수립이 불가하므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수출입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헤지 상품도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고 전했다.

첨 부 :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한 지역기업 영향 모니터링 결과 1부.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지역 기업 영향 모니터링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환율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지역기업 영향 및 피해, 향후 우려 사항 및 대책 등 파악
- 조사기간 : 2022. 6. 27. ~ 28.
- 조사대상 : 지역 주요 업종 수입업체
- 조사방법 : 업종별 담당자 유선 모니터링
- 조사내용 : 주요 원자재 가격상승 현황,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환율 인상에 대한 의견 등

1 모니터링 조사결과 핵심내용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불안정한 요인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긴축 기조와 인플레이션 우려, 무역 수지 적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환율 또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 철강, 화학, 섬유 등 원부자재 수입 기업들은 이미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직면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이란 변수까지 원가의 악영향을 끼치면서 가격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음

○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대해 지역기업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물리적, 재정적 한계로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음

○ 한편 인상된 원가를 납품가격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협력업체 입장에서 거래 관행상 납품단가 인상 요청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판매량 감소 우려로 제품 가격 인상 역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움

○ 원자재 가격상승 리스크에 대한 개별기업 차원의 대책 수립이 불가하므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수출입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강화가 필요함

2 주요 기업 모니터링 사례

○ 화학 제조업체 A사

- 사실상 공급망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원가 부담 요인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환율 또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큰 임펙트 있는 것은 아니며 환율로 인해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과거와 글로벌금융위기처럼 단기에 급격한 환율 상승이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까진 그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원가 부담에 대해선 회사가 감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부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단계적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음

○ 식료품 유통업체 B사

- 환율 인상으로 제품 수입 단가 상승하는 상황, 판매가는 정해져 있는데 원가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 환차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통상 환율이 100원 오르면 제품 가격 5~10% 인상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제품 가격도 많이 상승
- 제품 가격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판매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 제품 단가 변동이 실시간 반영되는 품목은 그나마 괜찮지만, 사전 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들은 납품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
- 환 헤지 상품(보험)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상품의 특성상 리스크가 크고, 환율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
- 특히 환율 관련 상품은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함

○ 식료품 제조업체 C사

- 수입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대기업에서 아직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 않아 업계 전반의 부담이 되고있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심각한 상황임
- 한편 제품 가격을 올리면 판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원자재 상승과 환율 상승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식료품 제조업체 D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추가적으로 인상되어 부담이 가중됨
-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바로 제품 단가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제품의 특성상 고객(농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제품 가격의 일부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올해 수익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

○ 식료품 제조업체 E사

- 제품 생산을 위해 아몬드, 땅콩, 식용유 등의 원자재 품목 다양하게 수입 중,
- 수입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어려운 가운데, 환율도 급격하게 올라 부담 가중
-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매출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을 적게 남기고 판매할 수밖에 없음. 특별한 대응책은 없으며,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 철강 제조업체 F사

- 중국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수입해 국내 조선, 건설업계에 유통하고 있음
- 최근 원·달러 환율 인상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해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비용상승분만큼 일부 반영하고는 있으나 제품의 적정 시세라는 것이 있어 반영률이 높지는 않고, 제품가격 인상으로 기업들의 수요도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임

○ 철강 제조업체 G사

-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연간 5천만불 이상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음
- 수입을 위한 달러 구매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에 따른 환차손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기업과 거래 시 큰 금액은 대금 자체를 달러로 받고 있어서 환율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음

❍ **철강 유통업체 H사**

- 원자재 가격 또는 환율 변동으로 비용 인상 시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 제품-수입품 비율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여 대응하고 있음
- 최근 환율·원자재가 변동으로 인한 피해 크게 체감하지 않음

❍ **식료품 유통업체 I사**

- 러시아산 대게(신선) 수입 및 유통, 주 거래처는 동해안 수산시장
- 활어를 수입하여 유통하기 때문에 전량 선물 현금거래, 환율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환헷징을 하고는 있으나 크게 유효하진 않음
- 위판장에 배가 들어오면 물건 확인 후 환율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출하는데, 대부분의 거래 규모가 커 실제 납품 및 거래대금 결제까지 평균 3일, 최장 7일까지도 걸리며 외상거래 또한 많이 발생, 그 사이에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생길 경우 바로 수익에 타격이 발생함

❍ **철강 제조업체 J사**

- 전기로를 이용하여 빌렛(Billet) 또는 고철(스크랩)을 철강제품으로 재생산
- 원자재는 국산 약 60%, 동남아산 약 30%, 일본산 약 10%의 비중
- 지속된 중국산 철강 감산 및 수출제한조치, 항구 봉쇄 등으로 인해 중국산 스크랩 수요가 국산으로 몰리며 가격 전년대비 상승, 생산비용 증가
- 동남아산 빌렛의 경우 거래대금을 달러로 결제, 최근 달러 환율 강세로 수익성 악화 우려되는 상황이며, 일본산 고철(스크랩)의 경우 최근 엔화 약세로 약간의 시세차익을 누렸으나 그 비중이 미미함
- 여기에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 추가 인상과 더불어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인상 등 복합적인 수익악화 요인 존재하는 상황
- 한편, 지난 해 상·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철강제품 가격 인상하여 원자재 가

격 상승분 반영, 영업이익 손실은 면했으나 실적 큰 폭 개선은 어려움

❍ 철강 제조업체 K사

- 수출 비중은 5% 정도에 불과, 열연강판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대상국은 일본 15%가량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임
- 거래대금 결제 시 달러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상승을 예상하고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달러선물을 활용해 환헷지를 했으나 보유한 달러선물조차 모두 소진하였음. 이에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 식료품 유통업체 L사

- 냉동창고를 활용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 중이며, 수출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나, 러시아로부터 명태를 수입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차지함
- 미·달러 TT송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현물환을 통해 환 헤지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최근 환율이 예측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가 부담 증가분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